

“정성 담긴 밑반찬 드시고 힘내세요”

전주시 동산동에 어려운 가정 돕기 ‘우리동네 찬나눔 가게’ 제5호점 탄생

동산동에서는 20일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우리동네 찬나눔 가게’ 5호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제 1~4호점에 이어 5호점을 연 ‘우리동네 찬나눔 가게’는 동네복지 특화사업으로 동산동 동네 음식점 및 반찬가게의 자발적 후원으로 5세대씩 결연을 맺어 5개월 동안 총 25세대에게 매주 1회 반찬을 후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동네동장과 노래교실 회원들은 밑반찬 전달과 말벗 등 홀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족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다. 동산동 정용환 동장은 “앞으로도 밑반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후원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나눔 문화정성으로 행복한 동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효녀가수 현숙’ 고향마을에 사랑의 쌀 300포 기증

김제시 교월동 출신 ‘효녀가수 현숙’ 씨가 지난 16일 개최된 제8회 교월동민의 날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300포(20kg, 1,000만원 상당)를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이날 자신의 모교인 월촌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여 ‘오빠는 잘 있단다’ 등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물한 뒤,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사랑의 쌀을 교월동 주민센터에 기증하였다. 박상문 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와 사랑을 전해주는 현숙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숙씨의 소중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 주민센터는 현숙씨가 기증한 사랑의 쌀 300포를 관내 경로당과 그룹홈 그리고 불우한 이웃세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효사랑 자장면 봉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회원 40여명은 20일 내마음속 보물상자 음식점에서 관내 어르신 500여명을 초청해 자장면 봉사를 가졌다. 이날 자장면 봉사에 참여한 새마을협의회원들은 직접 음식을 나르고 어르신들의 말벗을 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황승일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날과 같은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우아2동 새마을부녀회, 진흥하이츠 경로당 점심대접

우아2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명은 20일 관내 진흥하이츠아파트 경로당 방문해 어르신 50여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과일과 떡 등 음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어르신들 건강을 챙겼다. 정월임 우아2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군산시-세아베스틸,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 체결

군산시의 (주)세아베스틸이 20일 ‘2016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아베스틸은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2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사랑의 계좌 찾기 운동’과 ‘급여 끝난 모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필요한 후원금을 마련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나눔 세아리브하우스’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매월 무료급식소를 찾아 후원품 지원과 배식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시 효자3동 자생단체 회원, 여수 정원박람회 등 문화탐방

효자3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지난 19일 여수지역 정원박람회, 레일바이크 등 문화현장을 방문했다. 효자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 새마을부녀회 등 5개 자생단체회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상호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박병수 자율방범대 부대장은 “이번 자생단체 연합 문화탐방을 계기로 효자3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인 단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효자3동 박병수 부대장은 “자생단체 연합 문화탐방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생단체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효자3동을 이끌어 가는 주역들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덕진경찰서, 불법 무등록 대포차 근절 워크숍 개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일에 걸쳐 순찰팀장 및 전 수사관을 상대로 불법 무등록 대포차 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대포차 식별 요령과 개정법률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찰과 교통의근 요원의 신속한 현장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공유했다.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른 무등록 불법 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기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만 처벌하던 것을 운행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꾸고 운행정지 명령 위반시 형사처벌과 변호환 영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적극적인 단속으로 대포차를 근절해 대포차가 국민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속 추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대포차 근절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민주평통, 오늘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북지역회회가 주최하고 전주시협회의의 주관으로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2016년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가 21일 11시 전주 오벨리스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공, 전북·충남 지자체와 축제·고속도 이용 활성화 협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부는 2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기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 및 고속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권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11개 시·군이, 충청권은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충청권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동 실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를 활용한 지역축제 교차홍보, 홍보 브로서 공동제작 등이 주요 골자다. 이들은 전북-충청을 아우르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지역 간 경제교류 및 관광 활성화와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한국도로공사 문명국 전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공은 17개 시·군 기초단체의 지원을 받아 축제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하이패스 이용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 축제 방문객에게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북권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경찰 ‘설령줄’ 봉사동호회, 호성보육원 컴퓨터 학습 지원

전북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설령줄’ 봉사동호회는 20일 호성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의 컴퓨터 학습을 지원하는 재능기부 봉사에 나섰다. ‘설령줄’은 지난 2010년부터 매달 지역 보육원과 아동센터를 방문해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장비 고장 수리, 바이러스 치료, 네트워크 선로 점검 및 컴퓨터 교육과 함께 통학버스차량 방역소독 및 생필품 전달 등 나눔봉사에 힘을 쏟았다. 설령줄 봉사동호회는 “지금까지 지원대상 아동센터 64개소 중 52개소(81.25%)에 정보화장비를 지원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완산동, 전라라이온스클럽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

완산동에서는 20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전라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쌀 40포(100만원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전라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인정이 넘치는 완산동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정한 봉사는 본인이 가진 것이 풍족해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를 나눠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전주매일 222-4111(4호)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준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지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효자지사 010-9845-9335	팔복지사 253-689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태현(대전 한은시스템 연구원, 인명회 원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장남)·이서현(전주 화산초등학교 교사, 이경만씨 장녀)양 = 일 시 : 30일(토) 오후 1시, 장소 : 전주 엔터테인먼트센터 1층 배일리홀